主題

IT와 경제구조 변화 및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인 찬

차 례

Ⅰ. 서 론
Ⅱ. IT와 기존의 기술혁신
Ⅲ. IT와 경제구조 변화
Ⅳ. IT와 기업전략

Ⅰ. 서 론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소위 'IT혁명'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극단적 옹호론자들은 IT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키고 경기변동을 제거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른바 '신경제'의 탄생을 주장하였다. 비판론자들은 IT와 인터넷은 증기기관이나 전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기술혁신에 불과하다고 폄하면서, 신경제를 대변하는 미국의 경제성장은 단지 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양극단의 싸움에서 승부는 일단 후자인 비판론자에게 돌아갔다. IT산업은 과도한 기대와 투자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견인차에서 세계경제 둔화의 주범으로 탈바꿈하였다. IT산업의 침체에 의한 세계적인 경기둔화는 IT에 기반한 신경제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경제법칙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T혁명의 시대에도 경기순환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지나친 투자는 자본의 한계수익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IT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나친 기대로 인한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난 구조조정으로 IT의 본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IT가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IT가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되지 않는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신경제의 환상은 깨졌지만 IT가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경제의 고성장, 저인플레이션이라는 신경제 현상에 IT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과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던 창업가정신을 키웠고, 많은 기술기업의 창업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세기를 전후해서 지난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경제구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변화를 움직이는 힘은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IT의 확산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는 외부충격이라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는 생존을 위해 경제의 환부를 잘라내야 하는 구조개혁(reformation)이고, IT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도입과 관련한 재구조화(restructuring)이다. IMF 구조조정과 IT가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경제구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구조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IT에 대한 맹목적 기대와 환상이 깨진 지금, IT가 경제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나타난 경제구조 변화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T부문의 침체와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새삼 IT의 효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IT와 IT의 효과를 보다 냉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양극단에 서지 않고 그 가운데 어디에 있을 진실을 찾아보자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IT의 의미를 기존의 기술혁신과 비교하면서 IT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 구조조정과 함께 정보화가 진행되었는데, IMF 구조조정과 IT확산에 따른 주요 구조변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IMF와 IT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융산업과 벤처산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을 살펴본다.

Ⅱ. IT와 기존의 기술혁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이 통신기술과 접목되고 컴퓨터가 통신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접속(connectivity)이 늘어나고, 상호작용(interaction)이 증가하게 되면서, 과거와 다른 생산 및 거래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생산 및 거래구조는 우리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소위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가 가지는 힘의 원천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전자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교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간의 다양한 관계를 정의하고 제약하며 또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정보가 정보기술과 통신네트워크가 결합된 인터넷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활용되면서 경제구조와 행위를 바꾸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IT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구조 및 행위의 변화를 제3의 물결 또는 제3의 혁명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IT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상술적인 과대포장과 구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IT가 경제주체들에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이른 점도 있다. IT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IT관련 컨설팅회사들이 만들어낸 IT의 효과와 시장전망들을 들춰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주요한 기술혁신과 IT를 비교하면서 IT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사회 이후 산업사회의 도래를 가져온 기술혁신은 증기의 발명이었다. 증기는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했다. 따라서, 기계라는 개념과 이들 기계들을 한자리에 모아 생산할 수 있는 조직, 즉 공장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 전까지 가내수공업(home production) 단위로 이루어졌던 생산이 이제는 공장(factory production)이라는 조직과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소위 산업사회를 열게 되었다. 엔진의 발명이후에 인류에게 커다란 영

향을 미친 것은 철도의 발명이었다. 엔진의 발명으로 생산부문의 효율성을 증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 필요했다. 철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술혁신이었으며, 시장의 개념을 지역시장(local market)에서 국가시장(national market)으로 확대시켜 주었다. 철도의 발달은 시장의 개념을 지역과 국가, 그리고 대륙으로 넓히면서 생산부문에서 대량생산(mass production)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해결한 기술혁신이 전기였다. 전기는 포디즘(Fordism)과 같은 일련공정(assembly line)을 가능하게 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제조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로 산업사회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사회의 이러한 주요한 기술혁신의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극복되었고, 생산의 효율화와 소비시장(공간)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여년 전부터 꾸준히 발달 해온 기술혁신과는 달리 IT는 경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IT와 인터넷의 가치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즉시 저장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도록 하는 능력에 있다. 즉, UC Berkeley의 Brad De Long이 지적한대로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능력(muscle power)을 키웠다면, IT와 인터넷은 인간의 지적능력(brain power)을 키운다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혁명과는 다른 IT혁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IT혁명이 과학적 측면에서 철도나 전기보다 중요한 혁명은 아닐지도 모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기술혁신보다도 정보전달 및 조정비용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의 폭과 깊이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Ⅲ. IT와 경제구조 변화

1. IT와 관계의 변화

신경제론자들이 설파한 인터넷이 창조하는 경제는 정보가 풍부하고,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거래비용이 거의 영에 가깝고 진입장벽도 없는 이론바 교과서적인 완전경쟁모형에 가까운 경제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는 IT가 확산된 신경제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세계에는 없는 경제모형이다. 그러나, 신경제의 본질은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교과서적인 경제모형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교과서적인 완전경쟁 모형에 가까운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IT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가시켜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할당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상점의 거래를 통해 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더욱 잘 추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저렴한 공급업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찾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물품조달을 하게 됨으로써 생산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상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변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기획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은 고객과 직접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내외에서 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광범위한 지식 공유까지 기대할 수 있다. Cisco Systems가 주문의 70%를 웹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서비스 관련 문의의 70%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한편, 웹기반 공급관리시스템(SCM)을 구축해 Cisco와 계약 관계에 있는 전(全) 제조업체를 연결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

거래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비용절감 외에도 기업의 효율적 조직재편과 운용에서 창출되는 간접효과를 고려한다면, IT의 기여도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기업내부 조직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증가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일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B2C, B2B 등 기업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등 경제주체간의 거래와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기업 내부의 거래와 관계에 대한 IT의 효과를 간과한 측면이 많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이 생겨난 이유가 거래비용 때문이라는 경제이론에 의하면, IT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와 조정능력 향상으로 기업조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T의 도입에 따라 슬림한 조직, 아웃소싱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증기기관이 가내수공업을 공장생산으로 이행시켰고 전기가 자동조립 라인을 가능하게 하였듯이, 컴퓨터와 인터넷은 시장수요 파악, 투입물(input)의 온라인 조달, 기업조직의 슬림화,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인터넷이 기업조직안과 밖의 거래에 활용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생산성을 매년 0.4%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T혁명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할 때, IT는 증기기관이나 전기, 철도보다도 더욱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전세계 인구의 10% 미만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뿐이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50% 미만에 불과하며, 또한 인터넷을 제일 잘 활용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들 중에서 1/3 정도만이 생산 및 판매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IT와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최근 기업 경영환경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는 금융시장의 변화이다. 특히, 은행부문의 상대적 축소와 자본시장의 성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성장배경에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IT의 발전이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IMF 구조조정이 금융시장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IT의 영향을 살펴보자.

가. IMF 외환위기와 금융시장 구조변화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배분하는 은행들이 자본을 잘못 배분한 결과이다. 수익성도 없고 담보도 없으며 투명하지도 않은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담보가치의 수 배, 수십 배의 돈을 빌려주고서도 무슨 사업에 어떻게 빌려준 돈을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은 결과이다. IMF 이전 엄청난 부채를 부채로 메우면서 연명한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은행들의 부실여신은 은행이 담당할 수 있는 크기를 넘었다. 기업의 투명성 제약으로 은행권의 부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은 은행들이었다. 많은 지방은행과 소수 은행들은 문을 닫았으며, 그 이외의 대부분 은행들이 합병 등 격심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가계 및 투자자들은 은행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만큼 안전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1998년 불확실성이 팽배하였던 기간동안, 많은 자금들이 은행을 나와 갈 곳을 모르는 채, 잠겨있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한자리수를 기록하였다. 1998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위기의 순간은 넘겼다는 인식이 퍼지고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혔다. 실물부문에서는 경기의 저점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소비와 투자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부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었고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식시장은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상호지급보증금지, 부채비율 200%이하, 외환자유화, 기업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나. IT와 금융시장구조 변화

자본시장의 발달에는 IT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수요측면에서 IT부문의 성장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온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측면에서 IT라는 기술혁신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수요측면부터 살펴보자.

IT와 자본시장은 지난 2-3년간 압축 고속성장을 하였다. IMF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변화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IT산업의 성장이었는데,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다. IMF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투자자들은 은행이 아닌 주식시장(stock market)과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 발길을 돌렸고 주식시장과 벤처캐피탈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은 IT기업들이었다. 그렇다면 IT기업들이 왜 은행이 아닌 주식시장과 벤처캐피탈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IT산업의 기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equity investment)의 발달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을 융자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은행)과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나눈다면 IT기업들은 후자인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금수요자 입장에서 전자는 부채를 통한 차입시장(debt financing)이고, 후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시장이다. 자본시장 중에서 미공개 자본시장은 벤처캐피탈이고, 공개기업의 자본시장은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자금지원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발달을 요구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 유형자산(tangible asset)의 담보와 지급보증에 기초하여 자금을 운용하므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한 기술(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가는 성공할 확률이 낮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금전적 책임(financial liability)을 지는 부채를 얻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자금의 공급자도 창업 및 성장기업으로서 도산할 확률이 높고, 유형자산은 거의 없으며, R&D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에게 부채를 공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자금운용 방법이 될 수 없다.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부채를 빌리지 않으려는 유인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융자를 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대부자와 차입자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게는 벤처캐피탈과 같이 주식을 받고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코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은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장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원활히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회수된 수익을 다시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벤처캐피탈은 조달된 자금으로 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하고 회수하는 선순환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거래될 수 있는 (코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성장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벤처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증가시킨다. 또한 창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코스닥과 같은) 주식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곳도 주식시장이다.

이와 같이 IT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거래소시장(KSE)뿐 아니라 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과 벤처캐피탈이 요구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였다. 우리나라에 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인 코스닥이 개설된 것은 1996년이고,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정부가 코스닥이라는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벤처캐피탈 시장을 육성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성장해온 IT산업의 벤처기업들이 경제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한 결과였고, IT산업의 벤처기업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다른 구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IT와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부의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과 벤처캐피탈 시장이 IT 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시작하였고 코스닥은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급측면에서도 IT는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새로운 기술혁신인 IT는 은행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자본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자금의 중개기능을 직접 수행하였다. 예컨대,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를 알선, 중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자본풀(capital pool)이 가능해졌다. 엔젤과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온라인 매칭싸이트가 좋은 예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은행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지고 더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도 손쉽게 마우스 클릭을 통해 철수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사용상의 편리함과 저렴한 수수료율로 사이버트레이딩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믿음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한 과감한 투자(생명공학, IT 등의 벤처기업)를 오히려 가능하게 하였다.

3. IT와 벤처산업

지난 2-3년동안 벤처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몰아닥친 벤처열풍은 인터넷과 함께 한국경제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을 듯 하였다. 그러나 2000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의 침체와 경제전체의 구조조정 속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벤처거품론', '닷컴 위기론' 등으로 표현되며 냉소의 대상으로까지 추락하는 듯 하였다. 지난 2년여 동안 벤처관련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지난 2-3년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자원들이 일시에 벤처부문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금융부문에서의 변화는 두드러졌다. 자본시장의 성장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폭발적 성장은 기록적이었다. 특히, 인터넷 등 IT의 급속한 성장과 벤처붐은(거품이었다 할 지라도) 공개된 벤처기업(public firm) 투자시장인 코스닥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굳이 통계표나 극적인 그래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코스닥의 성장은 미공개기업(private firm)에 대한 투자시장인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다. 벤처캐피탈회사 수는 1996년 말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고 조성되는

벤처투자조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년간 벤처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 20여년간 벤처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을 능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남달랐다. 특히, 벤처산업이 우리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30년간 지속된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과 지식기반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어졌다. 또한 IMF 외환위기가 독과점적 산업 및 금융구조 하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대기업부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산업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IMF 구조조정 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기업 전통산업에서 벤처기업 IT산업부문으로 자원이동이 확연히 관찰되었다. 경제적인 자원이동이 사회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지되었다. 지난 2-3년간 거래소 시장에서 30대 재벌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았고,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몇 개의 벤처기업이 성장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IT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환경을 벤처산업에게 유리하게 개혁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IT산업과 벤처는 IMF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의 몰락과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은행의 구조조정, 자본시장의 성장, 그리고 IT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아주 짧은 기간동안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Ⅳ. IT와 기업의 경영전략

1. IT의 역설과 IT투자

불과 2년 전, IT와 이에 기반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투자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은 IT의 영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IT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짧은 시간 안에 역전되었고, 이는 나스닥(코스닥)의 폭락을 가져왔다. IT부문의 과잉투자와 신규수요 감소는 IT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IT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다. IT부문의 과잉투자와 자본의 수익성 감소에 따른 투자감소는 쉽게 이해가 가지만 IT의 수요감소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IT확산의 한계를 IT가 갖는 역설에서 찾고자한다. IT의 역설은 IT의 도입과 확산으로 경제의 효율성, 투명성이 증가하고 산업의 경쟁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지 않으며, 기업의 투명성, 효율성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 IT혁명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가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으나 오히려 그 반대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IT가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IT의 본질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T투자가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투명성이 높은 기업, 산업, 국가일수록 IT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IT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이 높은 조직이 IT를 통해 더욱 더 투명해 지고 효율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IT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유인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한 IT를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유도하는 구조가 외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화투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며, 생산성 향상 또한 기대 이하일 것이다.

둘째, IT투자와 활용은 경쟁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부문에서 IT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많은 닷컴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오프라인 기업들과 경쟁하여 시장이 더욱 경쟁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수직통합된 산업 및 기업구조에서 이러한 전망은 여실히 빗나갔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높은 부문일수록 제3자가 운용하는 e-marketplace는 성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최종수요자(downstream)인 대기업이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B2B만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업간 정보가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산업(예컨대, 제조업)에서는 IT가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기업간 관계를 보다 확고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쟁적인 산업보다 경쟁적이지 않은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받아들일 유인이 적다는 것은 다수의 경제학 논문에서 이미 제시된 현상이다. 산업이 독과점적이고 잠재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입할 유인이 낮고, 산업이 경쟁적이고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입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자를 앞서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것이다.

셋째, 둘째와 연관된 것으로 IT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오히려 IT투자는 효율적인 기업과 조직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IT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독점화된 조직일수록 IT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IT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IT투자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 의사결정, 조직문화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공유와 탄력적인 조직이 IT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IT의 역설은 IT혁명이 경제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non-IT부문으로 IT가 확산되는 데에는 이러한 역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식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설이 제시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 디지털경영 등 IT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만 같았던 이상들이 관습(convention)과 경로(path)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OECD는 미국의 신경제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구조조정)와 1990년대 클린턴노믹스(IT투자)의 합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하였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조세수입과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철폐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IT투자를 본격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고 IT혁명을 통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년간 '신경제'로 표현되는 미국경제의 성공은 신기술의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IT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이전에 이룩한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완화 그리고 구조조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IT는 기술이고 수단이다. I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화이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경쟁적 산업구조,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기업과 조직원의 인식과 조직문화, 그리고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IT이나 IT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 기존의 비효율적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인식(소위, legacy system)인 것이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잘못된 유산들이 바뀌지 않는 한 IT의 도입과 활용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IT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탄력적인 조직, 경영자의 의지 등 흡수능력(absorption capacity)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IT투자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2.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디지털경제는 노동과 자본이 근간이 되어 대량생산, 대량 소비에 의존하던 산업시대의 경제와는 근본을 달리한다. 따라서 기업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단순히 생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대로 경쟁의 장이 확대되고, 시장환경이 초고속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개발하고 핵심역량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관을 수정해야 한다. 위계구조를 축소해 각 조직원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됨으로써 변화에 뒤쳐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아웃소싱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기업의 핵심역량은 자본력, 시장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상황이 시시각각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순발력, 창의력, 전문적 지식 등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벌 등에 의존했던 기존 인재채용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을 겸비한 인적자원을 확보해 그들의 능력을 변화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

IT의 성장에 따른 벤처산업의 발달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가져와 앞으로도 우리 경제구조변화의 핵심을 구성할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갈 경제환경은 역동적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벤처기업들과의 관계가 중요해 진다. 이들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부문의 아웃소싱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아웃소싱 대상자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Cisco가 기술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기술 및 시장변화가 극심한 경영환경에서 이를 선도하는 벤처기업들과의 지식 네트워트는 필수이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의 아웃소싱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구조변화는 기업전략의 기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특히,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주주를 위한 경영이 뿌리내려야 함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를 매일매일 수정하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투자결정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경영활동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쉽게 확산될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mark-to-market)에서 기업의 홍보, 정보공개, 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한 핵심경영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주주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선호한다. 과거 우리의 대기업들의 "덩치 키우기" 전략은 자본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래의 주주와 현재의 주주들을 위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본시장에서 외국의 투자가들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하면서 기업경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에 따라 소액투자자의 위상이 강화되고, 기관투자가의 영업활동 감시 등 외부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지속적으로 공시제도가 강화될 것이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이 인 찬

1980년~1984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학사, 1984년~198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90년~1995년 美 Univ. of Pennsylvania대학 경제학 박사, 1996년~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2000년 8월~현재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실장, 2001년 4월~현재 IT벤처정책연구센터 소장.